

대입 에세이에 Chat GPT 사용해도 될까

ChatGPT 열풍이 대단하다. ChatGPT의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이를 대학 입시에 에세이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많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ChatGPT를 대입 에세이에 활용해도 될까?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는 ChatGPT를 대입 에세이에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또한,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ChatGPT를 사용하여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 에세이에서 표절은 치명적이다.

전반적으로 ChatGPT는 에세이 작성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물의 품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의 판단 및 감독과 함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AI 언어 모델인 ChatGPT는 대학 지원 에세이를 포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하

지만 대학 지원 에세이 전체를 작성하는 데 ChatGPT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적이고 독특하며 지원자 자신의 글쓰기 능력과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에세이를 찾고 있다. ChatGPT를 사용하여 에세이를 작성하면 개인적인 감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거나, 나만의 관점과 글쓰기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에세이가 될 수 있다.

대학 지원 에세이는 자신의 개성과 성취, 포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Chat GPT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글의 막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에세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에세이 작성에 이 도구를 사용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일반적인 주제나 생각을 생성하는 용도로만 제한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학에서 지원자의 글쓰기 능력과 정체성, 배경, 경험, 야망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지원 에세이를 읽는다는 것이다.

사진=shutterstock

대입 에세이 작성에 ChatGPT를 사용할 수 있다. 단, ChatGPT가 사람과 유사한 언어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학문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에세이를 생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ChatGPT는 관련 주제를 제안하고 논거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에세이 작성에 영감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에세이의 초기 초안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초안은 사람이 편집하고 다듬을 수 있다. 다만 ChatGPT로 생성된 에세이는 부정확한 내용, 오류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명문대 1년 학비 8만 달러 웃돌아

미국 주요 명문대들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버드·프린스턴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비리그 6개 대학의 오는 2023~2024학년도 학비가 8만 달러를 웃돌면서 부자들마저도 '스티커 쇼크'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동아일보'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한 브라운대는 가장 학비가 비싼 학교로 꼽혔다. 등록금·기숙사·식비 및 부대 비용이 포함된 연간 학비는 8만 4,828달러에 달했다. 2021년 미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 9,287달러다.

코넬대(8만 4,568달러)와 펜실베이니아대(8만 4,570달러) 그리고 다트머스대(8만 4,300달러)가 나란히 2, 3, 4위를 차지했

다. 이 밖에 학비가 8만 달러 이상 이상인 대학은 예일대(8만 3,880달러), 듀크대(8만 3,263달러), 캘리포니아공과대(8만 2,758달러), 스탠퍼드대(8만 2,406달러), 컬럼비아대(8만 1,680달러) 등이다.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 가운데 프린스턴대가 7만 6,040달러로 학비가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하버드대(7만 6,763달러)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7만 6,763달러)는 7만 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자 베스 에이커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오랜 기간 학비가 급등하다 보니 대학의 가치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학위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말했다. 이

를 증명하듯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미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대학 진학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18~34세의 젊은 층에서는 63%가 대학 졸업장은 쓸모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비 인상 요인으로 대학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꼽았다. 자산관리업체 커먼펀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기준 대학 운영 비용은 5.2% 증가했으며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는 "학비 전액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스티커 쇼크(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놀람)로 분부하

고 있다."며 보도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높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 명문대) 학사 학위는 전공에 따라 매우 다를 수는 있지만 (졸업 후) 수의 능력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미 명문대에서 인기 전공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조짐은 없다."며 '미 명문대 불패론'을 시사했다.


실제 미 명문대들은 막대한 학비를 거둬가는 만큼 장학금에 후한 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부분 상위 대학에서는 적어도 50% 학생이 일종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 필립 레빈은 평균 가계 소득이 12만 5,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중산층 학생들에게 명문대 학비는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30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p>메디케어</p> <p>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웰케어</p> <p>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Anthem AARP, Brand new, Central Health</p>	<p>각종 보험</p> <p>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p> <p>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p> <p>*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p>	<p>교통사고</p> <p>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p> <p>무료 상담! 전화주세요!</p>	<p>진료 내용</p> <p>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p> <p>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p> <p>예약/상담 714.530.7001</p>  <p>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p>
--	--	---	--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